

李濟馬의 四象哲學에 대한 研究

李 義 柱* · 宋 一 炳 *

The Study of Lee Je-ma's Sasang Philosophy.

Lee Eui-ju, Song Il-byung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

Lee Je-ma define the Mind as Taigi(太極), the mind(or wisdom) and the body(or action)as Liangyi(兩儀), the affair-mind-body-object as Sasang(四象). Sasang(四象) is the method, obtained through combining two different paradigm, by which we cans explain existence and phenomenon. The aim of Lee Je-ma's thought is the Wisdom and Action, in other words, the Adjusting Myself through the Wisdom and Action.

抄 錄

研究目的

李濟馬의 哲學과 醫學은 四象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哲學을 이해함에 있어 太極(心), 兩儀(心身), 四象(事心身物)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본 研究에서는 李濟馬는 우주발생론적 입장에서 太極·兩儀·四象을 어떻게 정의하고, 李濟馬 哲學과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논하여 본다.

研究方法 및 研究內容

東武 李濟馬의 著書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格致藁」, 「濟衆新編」, 「東醫壽世保元」, 「東武遺藁」,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등에서 발췌하였다.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四象醫學科

研究結果

1. 李濟馬는 만물의 근원을 心이라 하여 太極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太極은 統體—太極(智禮義仁)과 一物—太極(決覺行止)의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2. 李濟馬는 心身을 兩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心身은 知行이다.
3. 李濟馬는 事心身物을 四象이라고 정의하였다. 四象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를 합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드러난 存在(=現狀)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그 안에는 太極과 兩儀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4. 李濟馬 哲學 및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은 知行으로 知人正己에 있다. 學問(⇒讀書)을 통한 格物은 誠心의 방법이고, 思辨(⇒察俗)을 통한 慎獨은 敬身의 방법이다.
5.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我)을 극복하기 위하여 知行(心身)을 외재된 형식 즉 兩儀로 제시하고,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極으로 정의하였다.

中心語 : 心, 心身, 事心身物, 知行

I. 緒 論

李濟馬의 哲學과 醫學은 四象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그의 哲學을 이해함에 있어 太極(心), 兩儀(心身), 四象(事心身物)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할 것이다.

‘太極’이라는 용어는 중국 先秦의 문헌 가운데 『莊子』에 처음으로 보인다.

◎ 夫道 …… 在太極之先而不爲高, 在六極之下而不爲深
『莊子·大宗師』

그러나 『莊子』의 ‘太極’ 개념은 우주 무한론으로부터 현상계의 최고 극한을 말했을 뿐 특수한 철학적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

◎ 易有太極 是生兩儀 兩儀生四象 四象生八卦
『周易·繫辭傳』

『周易·繫辭傳』에서는 太極, 兩儀, 四象이 무엇인가에 대한 언급은 없다. 虞翻은 天地 혹은 乾坤을 兩儀라 하고, 春夏秋冬 四時를 四象이라 하였다. 공

영달은 天地를 兩儀라하고, 金·木·水·火 혹은 7·8·9·6의 數를 四象이라 하였다. 유목은 太極 元氣가 淸濁이라는 두 개의 氣로 나누어진 것을 兩儀라 하고, 氣의 맑은 것은 하늘이 되고 氣의 탁한 것은 땅이 된다고 하였으며, 공영달의 金·木·水·火 혹은 7·8·9·6의 설을 취하여 9를 老陽, 6을 老陰, 7을 少陽, 8을 少陰이라 하고 이것을 四象이라 하였다. 호원 역시 天地를 兩儀라 하고 金·木·火·水를 四象이라 하였다. 兩儀를 陰陽으로 해석한 사람은 周敦頤이다. 周敦頤는 그의 『太極圖說』에서 “分陰分陽 兩儀立焉”고 하였는데, 그에게서 兩儀란 곧 太極 元氣가 둘로 나누어져 형성된 陰陽을 가르킨다. 그러나 周敦頤는 四象은 말하지 않고 그 대신 五行을 말하였다. 소옹 역시 陰陽을 兩儀라 하였으나, 陰陽剛柔를 四象이라 하고, 陰陽은 하늘의 四象, 剛柔는 땅의 四象이라고 하였다. 주희는 위의 각각의 설을 종합하여 陰陽을 兩儀라하고, 太陽·少陰·少陽·太陰을 四象이라 하여 9·8·7·6의 數를 거기에 배합하였다.

위의 각각의 설을 종합해 보면 우주발생론의 입장

에서 太極은 곧 우주의 본원이며, 兩儀는 天地이고, 四象은 春·夏·秋·冬 四時를 가르키며, 八卦는 天·澤·火·雷·風·水·山·地라는 여덟 가지 자연현상을 가르킨다.¹⁾

본 研究에서는 李濟馬는 위와는 달리 우주발생론적 입장에서 太極·兩儀·四象을 어떻게 정의하고, 李濟馬 哲學과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논하여 본다.

II. 本 論

1. 太 極

● 太極 心也 「格致藁：反省箴，八卦箴總論」

이제마는 만물을 생성하는 만물의 근원으로 心을 태극으로 정의하였다.

● 天生萬物有物有則，人形物也，人性則也，以人形其人性，有物有則，一而二者謂之太極。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萬物은 則과 物이 합하여 구성된다. 物은 形이요, 則은 象이다. 人에 있어서도 예외는 아니므로 人形은 物이고, 人性은 則인 것이다. 有物有則은 一而不二한 것으로 이것이 太極이다.

則(理)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며 형체를 초월한 것으로 생물의 근본이며 그 사물의 내재 원리이다. 物(氣)은 시간과 공간에 내재하며 형체를 갖춘 것으로 생물의 질료가 되며 외재 형식이다. 따라서 한 객관적 사물의 존재는 반드시 則(理)을 품은 후에 비로서 그 사물의 性이 있게 되고, 반드시 物(氣)을 품은 후에 비로서 그 사물의 形이 있게 된다. 우주 만물은 모두 則(理)과 物(氣)에 의해서 그 존재가

결정된다.

- 一物止也，一身行也，一心覺也，一事決也。
- 勤以止也，能以行也，慧以覺也，誠以決也。
- 萬物居也，萬身群也，萬心聚也，萬事散也。
- 仁以居也，義以群也，禮以聚也，智以散也。

「格致藁：儒略，事物」

李濟馬의 太極은 두가지 의의가 있다. 하나는 天命流行의 주체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 주체가 객관적 사물에 유행하여 그 사물의 존재 근거가 된다는 것이다.

앞의 것은 보편적 태극을 말하고, 뒤의 것은 개별적 태극을 말한다. 혹은 앞의 것은 통체로서의 太極(統體—太極)이요 뒤의 것은 한 사물이 갖고 있는 太極(一物—太極)이다.

「格致藁」에서 모든 사물(非我)이 散聚群居하는 形에서 智禮義仁의 象(보편적 태극)을 말하였고, 한 사물(我)이 決覺行止하는 形에서 誠慧能勤의 象(개별적 태극)을 말하였다.

● 天機有四 一曰 地方 二曰 人倫 三曰 世會 四曰 天時

○ 人事有四 一曰 居處 二曰 黨與 三曰 交遇 四曰 事務

「東醫壽世保元：性命論」

따라서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 天機는 보편적 태극의 의미에서 살펴 볼 수 있고, 人事는 개별적 태극의 의미에서 살펴 볼 수 있어 서로 구별된다.

2. 兩 儀

● 兩儀 心身也

「格致藁：反省箴，八卦箴總論」

李濟馬는 心身을 兩儀로 정의하였다.

- ◎ 性有性用, 性用知也, 形有形用, 形用行也, 一知一行, 一生一成, 易簡相得者謂之兩儀.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또한, 心身은 知行이다. 人性에는 性の 用이 있는데 이것이 知이고, 人形에는 形の 用이 있는데 이것이 行이다. 一知一行하며, 一生一成한 것이 兩儀이다.

- ◎ 天機有四 一曰 地方 二曰 人倫 三曰 世會 四曰 天時
- ◎ 人事有四 一曰 居處 二曰 黨與 三曰 交遇 四曰 事務
- ◎ 耳聽天時 目視世會 鼻嗅人倫 口味地方
- ◎ 天時 極蕩也 世會 極大也 人倫 極廣也 地方 極遠也
- ◎ 肺達事務 脾合交遇 肝立黨與 腎定居處
- ◎ 事務 克修也 交遇 克成也 黨與 克整也 居處 克治也
- ◎ 耳目鼻口 觀於天也 肺脾肝腎 立於人也
- ◎ 天時 大同也 事務 各立也 世會 大同也 交遇 各立也 人倫 大同也 黨與 各立也 地方 大同也 居處 各立也
- ◎ 大同者 天也 各立者 人也
- ◎ 耳好善聲 目好善色 鼻好善臭 口好善味
- ◎ 善聲 順耳也 善色 順目也 善臭 順鼻也 善味 順口也
- ◎ 肺惡惡聲 脾惡惡色 肝惡惡臭 腎惡惡味
- ◎ 惡聲 逆肺也 惡色 逆脾也 惡臭 逆肝也 惡味 逆腎也
- ◎ 人之耳目鼻口 好善 無雙也 人之肺脾肝腎 惡惡 無雙也

『東醫壽世保元：性命論』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서는 李濟馬의 兩儀的 適用은 두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하나는 統體로서의 兩儀로 非我를 설명하고 있다.

天心(=心)을 天機로 하여 인체의 耳目鼻口에 배속하였고, 人心(=身)을 人事로 하여 인체의 肺脾肝腎에 배속하였다. 그리하여 天心은 好善하고, 人心은 惡惡하는 구조를 가진다.

- ◎ 頷有驚策 臆有經綸 臍有行檢 腹有度量
- 驚策 不可驕也 經綸 不可矜也 行檢 不可伐也 度量 不可夸也
- 頭有識見 肩有威儀 腰有材幹 臂有方略
- 識見 必無奪也 威儀 必無侈也 材幹 必無懶也 方略 必無竊也
- 頷臆臍腹 行其知也 頭肩腰臂 行其行也
- 驚策 博通也 識見 獨行也 經綸 博通也 威儀 獨行也 行檢 博通也 材幹 獨行也 度量 博通也 方略 獨行也
- 博通者 性也 獨行者 命也
- 頷有驕心 臆有矜心 臍有伐心 腹有夸心
- 驕心 驕意也 矜心 矜慮也 伐心 伐操也 夸心 夸志也
- 頭有擅心 肩有侈心 腰有懶心 臂有慾心
- 擅心 奪利也 侈心 自尊也 懶心 自卑也 慾心 竊物也
- 人之頷臆臍腹 邪心 無雙也 人之頭肩腰臂 怠心 無雙也

『東醫壽世保元：性命論』

다른 하나는 個別的 兩儀로 我를 설명하고 있다. 知(=性=心)를 인체의 頷臆臍腹에 배속하고, 行(=命=身)을 인체의 頭肩腰臂에 배속하였다. 그리하여 性은 邪心을 극복하여야 하고, 命은 怠行을 극복하여야 한다.

그러나 李濟馬는 이러한 두가지 패러다임을 서로 분리하여 생각하지는 않았다.

예를 들면, 天稟之已定인 天心과 人心을 목표로 天稟之未定인 性命(=知行)을 存心·修身하여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뒤에 知行에서 따로 논하기로 한다.

3. 四 象

「格致彙：反省箴，八卦箴總論」

◎ 四象 事心身物也

「格致彙：反省箴，八卦箴總論」

이제마는 事心身物을 四象으로 정의하였다.

- ◎ 勝騰物也. 腰騰身也. 胸膈心也. 面目事也.
- 事卽天也. 物卽人也. 身卽命也. 心卽性也.
- 天在上也. 人在下也. 身向左也. 心向右也.

「東武遺稿」

- ◎ 一身立誠於昊天之下 而中庸之道 行於昊天之下 乾兌 部位 所以形於上也
萬物同胞於大地之上 而大學之德 行於大地之上 坤艮 部位 所以形於下也
- 整齊知行之術 其理在左 而可得之術 必在於我 離震部 位 所以形於左也
平均財祿之權 其理在右 而可得之權 必在於他 坎巽部 位 所以形於右也
- 身有兩用 誠身 敬身也 心有兩用 理心 利心也
誠身 敬身者 身之前後也 誠於乾而 敬於坤也
理心 利心者 心之左右也 理於離而 利於坎也

「格致彙：反省箴，八卦箴總論」에서 四象은 事心身物로 身을 축으로 天과 地가 上下로 구분되고, 心을 축으로 他와 我가 左右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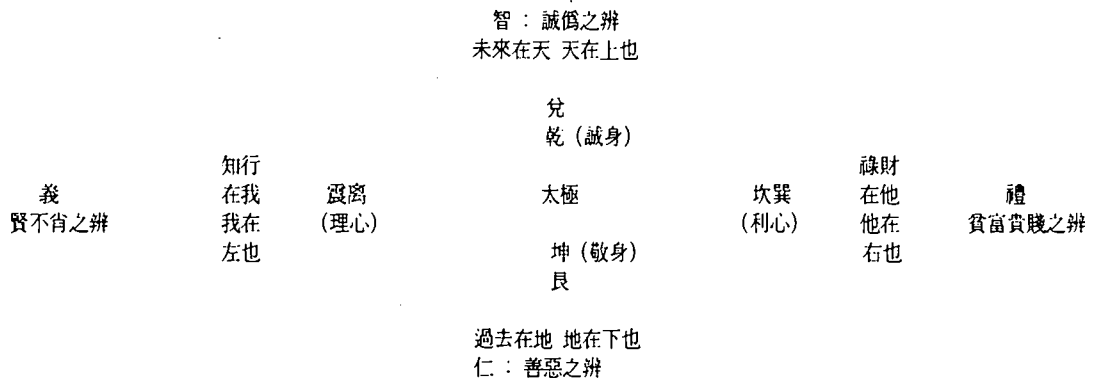
天은 身의 上으로 乾兌가 上에 거하고, 他는 心의 右로 坎巽이 右에 거하고, 我는 心의 左로 離震이 左에 거하고, 地는 身의 下로 坤艮이 下에 거한다.

身의 兩用은 誠身과 敬身이며, 心의 兩用은 理心과 利心이다. 誠身은 乾에 敬身은 坤에 거하고, 理心은 離에 利心은 坎에 거한다. 【그림 1】

- ◎ 乾兌智也. 其理行乎未來, 而誠僞之辨. 盖取諸象也.
- 坤艮仁也. 其理行乎過去, 而善惡之辨. 盖取諸象也.
- 離震義也. 其理行乎知行, 而賢不肖之辨. 盖取諸象也.
- 坎巽禮也. 其理行乎祿財而, 貧富貴賤之辨. 盖取諸象也.

「格致彙：反省箴，八卦箴總論」

또한, 乾兌는 智로 그 이치가 未來를 나타내며 誠僞之辨을 取象하고, 坤艮는 仁로 그 이치가 過去를



【그림 1】 李濟馬의 八卦箴總論圖

- 八卦 事有事之終始 物有物之本末 心有心之緩急 身有身之先後
- 乾:事之始也 兌:事之終也 坤:物之本也 艮:物之末也 離:心之急圖也 震:心之緩圖也 坎:身之先着也 巽:身之後着也

나타내며 善惡之辨을 取象하고, 离震은 義로 그 이치가 知行을 나타내며 賢不肖之辨을 取象하고, 坎巽은 禮로 그 이치가 祿財을 나타내며 貧富貴賤之辨을 取象한다. 【그림 1】

이것은 事에서 智의 是非之理로 未來의 誠僞를 辨別하고, 物에서 仁의 惻隱之理로 過去의 善惡을 辨別하고, 身에서 義의 羞惡之理로 知行的 賢不肖를 辨別하고, 心에서 禮의 辭讓之理로 祿財의 貧富貴賤을 辨別한다는 것이다.

-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也.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也. 一洪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變靜動化者謂之四象. 止有四志, 魄魂心意也. 動有四象, 屈放收伸也. 覺有四象, 辨思問學也. 決有四象, 貌言視聽也.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

- 貌言視聽 事四端也, 辨思問學 心四端也, 屈放收伸 身四端也, 志慮慮意 物四端也.

『格致彙：儒略, 事物』

한편,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原人之第四統』에서 知에는 舒卷이 있어 舒而決하며 卷而覺하고, 行에는 進退가 있어 進而動하며 退而止한다. 一決一覺,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의 變靜動化을 四象이라고 한다. 【그림 2】

止의 四象은 魄魂心意로 物四端이고, 動의 四象은 屈放收伸으로 身四端이고, 覺의 四象은 辨思問學으로 心四端이고, 決의 四象은 貌言視聽으로 事四端이다. 【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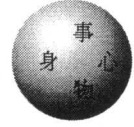
이와 같이 四象의 개념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를 합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드러난 存在(=現象)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그 안에는 太極과 兩儀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특히 李濟馬는 四象을 事物의 페러다임과 心身の

太極
心

兩儀
心身

四象
事心身物



人性則 性用知 知有舒卷 舒而決 卷而覺
人形物 形用行 行有進退 進而動 退而止

有物有則 一知一行 一決一覺 四端的 體用
一生一成 一動一止
一舒一卷
一進一退

知	舒：決	聽視言貌 ⇔ 肅艾哲謀]
	卷：覺	學問思辨 ⇔ 博審慎明	
行	進：動	伸收放屈 ⇔ 誠慧能動]
	退：止	意慮瞻志 ⇔ 利勇謀知	

(魄魂)

【그림 2】 李濟馬의 事物觀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우주 만물의 드러난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事心身物의 四象에는 兩儀의 心身과 太極의 心이 모두 내재된 원리로 존재하고 있다.

4. 知 行

李濟馬의 知行에 대한 견해는 그의 形象觀과 哲學의 目標를 담고 있다.

- 乾坤離坎箴之情僞 我必行欺詐於人之機勢也 存心之戒也
良兌震巽箴之情僞 人必行欺詐於我之機勢也 守身之戒也

『格致彙：反省箴，八卦箴總論』

李濟馬의 心은 心身으로 存心(人知)과 修身(我行)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 何以知之 心以知之也 何以行之 身以行之
心不可以放蕩 放蕩則損知 身不可以偷逸 偷逸則損行
- 用其心於放蕩者 雖有其心 與無心 同也
無心則知何從出乎 用其身於偷逸者 雖有其身 與無身 同也 無身則行何從出乎
是故 其心放蕩者 愚人也 其心從容者 知人也 其身 偷逸者 不肖人也 其身 敏強者 賢人也
- 學問之道 無他 求其放心從容而已 此之謂誠也 思辨之道 無他 警其逸身敏強而已 此之謂敬也

『濟業新編：知行論』

心으로써 知하고, 身으로써 行한다. 따라서 心은 放蕩하지 말아야 하며, 身은 偷逸하지 않아야 한다. 放蕩한 心을 從容하는 것이 學問의 道이며 誠이고, 偷逸한 身을 敏強하는 것이 思辨의 道이며 敬이다.

李濟馬는 學問에 의한 誠心을 知的 궁극적 목적으로 정하였고, 思辨에 의한 敬身을 行的 궁극적 목적으로 정하였다.

- 獨非徒獨 獨則思也 接非徒接 接則問也 辨非別辨 思則辨也 學非別學 問則學也
若能實思 自然實辨 若能實問 自然實學
- 何謂慎獨 獨思無邪也 何謂格物 物問有正也
爲人也惡惡 慎獨者多 爲人也好善 格物者多 果能惡惡 自然善思 果能好善 自然善問
- 伯夷之所惡者 僞也 僞者 天下之至煩也 不可以惡而必克
柳下惠之所好者 誠也 誠者 天下之至精也 不可以好而必得
- 好誠圖誠 泊沒接物 惡僞避僞 狹窄守獨 接物自反 守獨得誠 守獨勇往 接物克僞
- 問 莫大於讀書 思 莫大於察俗 博古讀書 可謂善學

通今察俗 可謂善辨

- 守獨之思 其思如泉 辨惡無窮 接物之問 其問如林 學善無限

『格致彙：天下索我』

『格致彙：天下索我』에서는 知行的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慎獨은 獨思無邪며, 爲人也惡惡면 慎獨者가 많다. 惡惡가 능하면 自然히 善思한다. 惡惡은 天下之至煩(=僞)을 克하는 것이다.

格物은 物問有正으로 爲人也好善면 格物者가 많다. 好善이 능하면 自然히 善問한다. 好善은 天下之至精(=誠)을 得하는 것이다.

問의 가장 좋은 방법은 讀書로 博古讀書면 또한 善學하게 된다. 思의 가장 좋은 방법은 察俗으로 通今察俗면 또한 善辨하게 된다.

따라서 知⇒存心(心從容)⇒格物(讀書)⇒好善⇒誠이고, 行⇒修身(身敏強)⇒慎獨(察俗)⇒惡惡⇒敬이다.

- 耳目鼻口 人皆可以爲堯舜 頤臆臍腹 人皆自不爲堯舜 肺脾肝腎 人皆可以爲堯舜 頭肩腰臀 人皆自不爲堯舜
- 頤臆臍腹之中 自有不息之知 如切如磋而 驕矜伐夸之私心 卒然敗之則 自棄其知而 不能博通也
頭肩腰臀之下 自有不息之行 赫兮喧兮而 奪侈懶竊之慾心 卒然陷之則 自棄其行而 不能正行也
- 我之頤臆臍腹 我自爲心而 未免愚也 我之免愚 在我也 我之頭肩腰臀 我自爲身而 未免不肖也 我之免不肖 在我也
『東醫壽世保元：性命論』
- 天心惡私也, 人心惡慾也, 命理戒逸也, 性理戒放也.
- 天心惡私, 故我身忘於天, 而漸向左也. 人心惡慾, 故我心忘於人, 而漸向右也.
忘於天者, 不以私要天也. 忘於人者, 不以慾要人也.
- 不以私要天, 則身益正大而天必應也. 不以慾要人,

則心益光明而人必與也.

盖天心不可以私得, 而可以無逸得也. 人心不可以慾
得, 而可以無放得也. 『東武遺稿』

天心은 私로써 얻어지지 않고 命(=身=行)의 無
逸로써 惡私하며 好善하고, 人心은 慾으로써 얻어지
지 않고 性(=心=知)의 無放으로써 惡慾하며 惡惡
한다.

天人과 知行的 관계는 【그림 3】에서도 잘 나타
나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李濟馬는 太極을 왜 心으로 정의
하였을까?

邵雍은 『皇極經世書:觀物外篇』에서 “心爲太極”
이라고 하였다. 心에 대해 그는 “人居天地之中 心居
人之中”고 하였는데, 心외에 一,性,道를 太極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뜻은 하나이니, 곧 고요하여 움직이
지 않는 천지만물의 근원이다.¹¹⁾

李濟馬는 천지만물의 중심 즉 우주변화의 내재된
원리로 心을 太極이라 정의하였다.

太極之心の 외재된 형식인 心身을 兩儀로 정의하

고, 知行을 철학적 목표로 삼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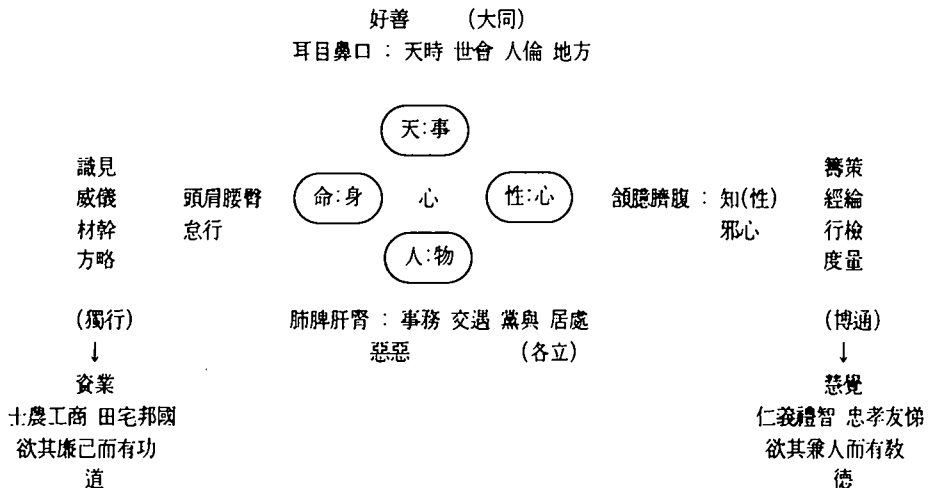
太極之心和 兩儀之心身이 겹으로 드러난 현상은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요약되어 李濟馬는 四象을 철
학적 도구로 삼아 만물을 분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李濟馬 哲學은 『東醫壽世保元:性命論』에
잘 나타나 있다. 【그림 3】과 같이 太極은 心, 兩
儀는 性命(心身), 四象은 天性命人(事心身物)이다.

人之耳目鼻口와 人之肺脾肝腎은 天稟之已定으로
好善의 天心和 惡惡의 人心으로 각각 대응된다. 我
之頷臆臍腹과 我之頭肩腰臀은 天稟之未定으로 私心
의 博通과 怠行의 獨行으로 각각 대응된다.

이렇게 四象으로 드러난 현상의 모순을 ‘我’로 구
정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李濟馬는 存心和 修
身을 통한 知行을 철학적 목표로 삼았을 것이다.

다시말하면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
의 四象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我)을 극복하기
위하여 知行(心身)을 외재된 형식 즉 兩儀로 제시하
고,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極으로 정의하였다.



【그림 3】 李濟馬의 性命圖

III. 結 論

李濟馬의 哲學과 醫學은 四象을 기초로 형성되어 있으나 太極(心), 兩儀(心身)을 반드시 함께 논해야 한다.

1. 李濟馬는 만물의 근원을 心이라 하여 太極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太極은 統體—太極(智禮義仁)과 一物—太極(決覺行止)의 두가지 의미를 갖는다.
2. 李濟馬는 心身을 兩儀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心身은 知行이다.
3. 李濟馬는 事心身物을 四象이라고 정의하였다. 四象은 서로 다른 네가지 단위를 합한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가 있는 두가지 페러다임을 결합하여 드러난 存在(=現狀)을 설명하는 도구이다. 그 안에는 太極과 兩儀를 모두 함축하고 있다.
4. 李濟馬 哲學 및 形象觀의 궁극적 목적은 知行으로 知人正己에 있다. 學問(⇒讀書)을 통한 格物은 誠心의 방법이고, 思辨(⇒察俗)을 통한 慎獨은 敬身의 방법이다.

5. 李濟馬의 四象哲學은 現象을 事心身物의 四象으로 요약하여 이것의 모순(我)을 극복하기 위하여 知行(心身)을 외재된 형식 즉 兩儀로 제시하고, 心을 내재된 원리 즉 太極으로 정의하였다.

IV. 參 考 文 獻

1. 김상섭 : 易學啓蒙, 예문서원, 서울, 1996.
2. 송일병 : 東醫壽世保元四象草本卷,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과, 서울, 1999.
3. 이제마 : 東醫壽世保元, 서울, 1941.
4. 이제마 : 格致藁, 덕흥인쇄소, 함흥, 1940.
5. 고병희 : '東武 李濟馬의' 東武遺稿에 대한 翻譯 연구결과보고서, 경희대학교, 1997.